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5년도 표어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생활지침 ☉

- 1.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자
- 2.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자
-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선실이 될 전(殿)을 건축하자

발행인: 이종운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95비전 2000운동 일주일 앞으로

이번 주간, 태신자 카드 작성

- 다음 주일 I, II, III부 예배 시간에 제출 -

'95 비전 2000운동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주간에는 기도하면서 태신자(胎信者)를 정하고 배부받은 태신자 카드를 작성한다.

어머니 배 속에 있는 아이를 태아(胎兒)라고 하듯이, 태신자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로 하고 마음에 품은 대상을 말한다. 올해 비전 2000운동 기간 중 서울교회 모든 성도는 주변에서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세 명의 태신자를 결정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기회 닿는대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된다.

태신자 카드는 보관용과 제출용이 있는데 보관용은 개인이 자신의 태신자를 기억하며 기도하기 위한 것이고, 제출용은 교회에서 태신자들을 관리하고 각종 유인물을 발송하는 데에 활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제출용 태신자 카드는 우편물이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작성한 태신자 카드는 다음 주일(10월 8일) I, II, III부 예배 헌금시간에 제출하면 된다.

비전 2000운동은 성도의 일상(日常)이어야 할 복음 전하는 일을 성도 개개인이 삶 속에서 잘 실천하도록 돕기 위한 교회의 행사이다. 따라서 이 운동 기간동안 성도들은 평소에 힘쓰지 못하던 전도생활에 대해 교회로부터 도전도 받고 도움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일에는 개인과 교회의 기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므로 교회는 이번 '95 비전 2000운동 기간에도 특별한 기도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였다.

▶ **다니엘 기도** - 어느 곳에 있든지 오전 10시와 오후 10시에는 서

울교회는 성도가 기도로 만난다. 포로의 몸이면서도 뜻을 정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세번씩 기도하던 다니엘처럼 정한 시간(오전10시, 오후 10시)에 교회, 나라와 민족, 북한과 세계를 위해 기도한다. 이 시간에 서울교회의 모든 성도의 마음과 뜻과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다.

▶ **연속기도회** - 50일간 기도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층 예배실은 공식적인 예배와 집회 시간 외에는 항상 기도실로 개방된다. 오늘 받은 <연속기도회 참가 신청서>는 본인이 참석 가능한 시간에 모두 표시하여 다음 주일에 태신자 카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 **금요일 심야기도회** - 비전 2000운동기간 동안의 금요일 심야기도회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순서를 가지게 된다. 평소에 기도에 힘쓰지 못했다면 이번 기간 중의 금요일 기도회를 통해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심야 기도회 후에는 심야 전도도 진행될 예정이다.

그밖에도 일곱 주간의 행진을 하는동안 청소년 초청 찬양집회, 어린이 초청 음악예배 등 전도와 새가족을 환영하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 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성도 개개인의 영혼 사랑하는 마음과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사명감이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95 비전 2000운동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준비하면서 기대감 넘치는 10월을 열자. 전도를 통해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며, 기도에 더욱 힘씀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자 하는 것이 비전 2000운동의 주된 목적 중 하나이다.

태신자 카드

▶ **보관용 / 작성한 사람이 태신자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기도하기 위한 것.**

* 보관용 *

남편의 태신자를 기록하여 기도합니다. 기도가 될수록 태신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태신자의 영적 성장과 신앙을 위해 교회로 인도합니다.

1	이름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2	이름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3	이름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이름과 성명 모두 한글과 영문으로 적는 것만 가능하며, 성명에는 '씨'를 붙이지 않습니다. (예: 김민준, 김민준 씨)

▶ **제출용 / 교회에서 태신자 관리와 유인물 발송에 사용됨. 우편물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 제출용 * (소별관리자 및 주교로 수 있도록 기재) 기해 9402

1	이름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2	이름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3	이름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 '95비전2000운동을 통하여 ☉

- 1.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여 2000년까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도록 합시다.
- 2.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음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좀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읍시다.
- 3. 아직도 전도를 못해보았다면 이번 비전 2000운동을 통해 전도를 경험해 봅시다. 성령님을 힘입을 때 '나도 전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 4. 각 기관과 교회학교, 선교회와 전도회, 다락방들은 잃은 양을 찾아나섭시다. 구성원이 배가될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 5.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와 전도를 통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며, 기도 모임들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체감을 얻을 수 있도록 열심을 내봅시다.
- 6. 나라와 민족, 복음화된 통일조국,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기회로 삼읍시다.

참세기 강해



아침에 보니 레아더라

(29장 1절 - 30절)

이종운 목사

깊은 기도의 체험이 없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환란을 통해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을 그의 생애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약속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생동안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어머니의 가족들을 어려움 없이 만나게 하시고 하란에서의 수 년동안은 그에게 가장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1. 첫 눈에 반한 야곱

하란에 도착하여 라헬을 만난 순간부터 야곱은 그녀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성경에 나타난 최대의 애정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7년간이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날에 첫날밤을 지내고 눈을 떠보니 라헬이 아닌 레아였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7일을 더 채우면 라헬을 줄 것이며 그 후 7년을 더 봉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는 7년을 수일처럼 봉사하였습니다.

라헬에 대한 야곱의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야곱과 라헬은 70년을 같이 산 동반자였습니다. 야곱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불러 축복하던 도중 갑자기 베냐민을 낳고 죽은 라헬을 그리워하는 말을 합니다(창48:7). 야곱의 라헬에 대한 사랑은 참 사랑이었습니다. 죽음조차도 가를 수 없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라헬에 대한 야곱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이었습니다. 라헬을 향한 사랑 까닭에 아내를 얻기 위한 7년간의 종살이를 수일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20절). 야곱은 사실 여러 면에서 모범이 못된 족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내를 사모하고 오래 참은 모습에서 우리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2. 속인자가 속았다

리브가는 야곱과 함께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 결과로 야곱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왔습니다. 야곱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생활이 안정되면서 야곱은 서서히 하나님을 잊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삶의 여러 모양을 통해 그에게 교훈하십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꾀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잠13:15).

하란에 도착해서 한달 쯤 지났을 때 라반은 보수를 주겠다고 하며 타협을 요청합니다(15절). 겉으로는 야곱을 돕는 말 같지만 노사관계를 맺자는 것입니다.

야곱은 전에 고용되어 일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라" (창25:23) 하신 말씀대로 형인 에서로부터도 섬김을 받으려 했었습니다. 그러던 야곱이 여기서 외삼촌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는 라헬을 얻기 위해 라반 집에서 7년간 종살이를 하기로 합니다. 라반은 이에 동의합니다(19절). 그러나 7년 후 라반은 그 약속을 저버립니다. 야곱은 안타까운 마음에 약속을 상기시킵니다(21절). 교활하게도 라반은 라헬 대신 레아를 들여보낸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은 자매이니 유사한 점이 분명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레아는 라헬처럼 가장을 하고 야곱을 속였을 것이고 라헬인 줄로 알았던 야곱은 아침에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7년간의 종살이는 라헬을 위한 것이었음을 레아도 알고 있었기에 야곱은 그녀를 향해 격노합니다(25절). 라반은 형보다 아우를 먼저 보낼 수 없다며 신혼기간 7일을 채운 후 라헬을 주겠으나 7년을 더 일하라고 합니다.

야곱이 여기서 배워야 할 몇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결혼은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야곱이 원치 않게 레아 다음에 라헬이 차례로 주어진 것을 통해 장자권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로 라헬의 아버지로부터 속임을 당했으니 자기 아버지를 속인 것을 기억하고 죄를 회개했어야 합니다.

속인자가 속임을 당합니다. 뿌린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은 장인으로부터 속임을 당합니다. 야곱은 이삭을 속이려고 에서처럼 가장하였는데 레아도 라헬처럼 하기 위해 여러가지 가장을 하여 야곱을 속였을 것입니다. 또한 라반은 야곱을 속이려고 레아에게 계락을 꾸미고 라헬은 라반을 속이는 일이 계속됩니다(창31:35). 에서로부터 팔죽 한그릇에 장자 명분을 빼앗은 야곱은 자기 이득만을 챙기는 라반에게 10번이나 샅을 빼앗기는 억울함을 당합니다.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염소털로 온 몸을 감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야곱(27:16)

은 후에 사랑하는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죽었다고 하며 아들의 옷에 염소 피를 바르고 거짓말을 하는 이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37:31).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보복을 받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목적이 잘못된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속임을 당하고 가슴을 찢을 이삭과 에서처럼 야곱과 라헬도 가슴을 찢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을 속이는 일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거둘 날이 있음을 알고 속이는 방법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살아야 합니다(갈6:9).

"아침에 보니 레아더라". 혹시 나의 가치관, 봉사, 믿음, 나의 생각이 이와 같지 않은지, 거짓된 것에 속고 있지는 않은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봅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6:7).

순례자 컬럼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신가?

인생칠십이면 장수로 보던 시대와는 달리 요즘엔 고회를 즐기는 이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다.

아무리 장수한다 해도 이천년을 살고있는 이는 지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죽은 예수를 예배한다면 문제는 매우 심각해진다. 살아계신 인격이 아닌 죽은자의 교훈과 유덕이나 섬기는 것이라면 다른 종교나 이데올로기를 따른 이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예수는 분명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다. 사흘만에 부활하시고 사십일만에 승천하셨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으로부터 왕관을 받으시고 인간을 포함한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신다. 예수는 자기 백성의 갈 곳을 준비하고 계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화해자로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다시오실 예수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살아계신다.

고 3을 위한 기도회에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예비하게 하옵소서”

최난수 (권사)



◀ 지난 주일, 고등부에서는 취업과 진학을 앞둔 이들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결연하여 기도해 온 기도후원자들과 함께 기도회를 가졌다.

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길에 대처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한사람 한사람에게 향하신 목적과 뜻이 있으시고 다양한 재능과 능력을 부여 주신 것과 준비한 그릇만큼의 사명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여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예비하게 하옵소서.

이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길 다시 한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 아멘 -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고등학교 3학년들을 위한 기도모임을 가집니다.

주 안에서 자란 이들이 어언간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취업의 길로, 또 몇몇은 이 나라 교육법에 따라 대학입사라는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에 합당한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느라 바쁘다고 핑계하며 주님을 잊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게 도와주시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욱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공부하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지혜의 주님! 두뇌에 명철함과 총명함을 더욱 주시어 이들이 질서 정연하게 실력을 잘 쌓아서 하나님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 배운 지식을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험을 치를 때마다 마치 영긴 실이 술술 풀리듯 그간에 배운 것들이 잘 정리되어 바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최선을 다한 후에는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면이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여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

■ 광야의 소리

영원히 감사할 일

생각함이 없이 행동만 앞세우는 사람은 경박하고 생각은 많으나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답답하다. 생각이 깊을 뿐만 아니라 생각한 바를 과감히 실천하는 결단력을 갖춘 사람을 세상은 인물이라고 자랑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인물이 귀하다는 말을 가끔 듣는다.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는 사람이 적다는 뜻이 아니라 깊은 생각과 바른 행동을 아울러 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는 뜻이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도록 은삼십에 가룟 유다는 과감한 결단력은 있었는지 모르나 엄청난 오판으로 인해 천추에 씻지 못할 죄인이 되었다. 생각이 실천에 방해가 되는 것은 그 생각이 바로지 못하고 철저히 못하기 때문이다.

항상 진리 안에서 호흡하고 사는 자는 생각도 행동도 자유로워지고 진실해진다.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게 하시고 그를 삼십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역사의 방향과 의미를 새롭게 부여해주신 하나님의 생각과 구원은 우리와는 달랐다.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유감없이 나타난 것을 영원히 감사하자.

반석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까지 배움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아울러 진학과 취업이라는 생의 첫 도전을 하나님과 함께 맞이하자. 미래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결정해야 할 많은 일들과 그에 따르는 마음의 무거운 짐을 홀로지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위대한 목표가 있는 우리들은 최선을 다하는 인내의 사람이 되자. 눈물로 간구하며 용원을 보내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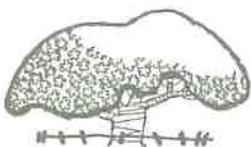
부모님과 많은 성도들의 기대는 그대들이 온전한 천국시민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이 관문을 멋지게 통과하도록 하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사 41:10)하신 말씀을 깊이 체험하는 기회가 되길



■ 권면 - 진학과 취업을 앞둔 이들에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자”



김영식 (집사)

각 부서 기도와 전도 운동의 열기

- 대한예수교장로회 -

제 80회 총회 낙수

1906명의 총대가 참석한 대한 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가 예정대로 지난 9월 26일에 마쳤다.

이번 총회에서 주목할 것은 군선교부 보고에서 국방부 군목정책에 대한 시정촉구가 있었던 것과 21세기 교단발전위원회가 설치된 것이다. 한편 현재 신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까지 분별없이 불리던 '전도사' 호칭을 앞으로는 노회의 인허를 받은 자에 한하여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신학교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자는 '교역사'로 하기로 했다. 안수 후 10년 차와 20년 차 되는 목사는 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으며 교역사 시무 7년째 되는 해에는 반드시 안식년을 갖도록 하였다. 북한 동포를 위한 지원활동을 범교단적으로 시행하는 일과, 민족 복지를 위한 사회봉사대회(Diakonia)를 개최할 것도 논의하였다.

◆ 고등부 - 「남은 그루터기」들

주로 1학년들로 이루어진 「남은 그루터기」는 주일마다 강남역, 고속버스 터미널 등으로 노방전도를 나간다. 학생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구성되어 수개월간 지속적인 전도활동을 펴고 있는 이 모임에서는 비전 2000운동을 앞두고 자신들의 용돈을 모아 전도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등 재정비, 재무장을 하고 있다. 「남은 그루터기」들은 전도하는 습관이 교회 뿐 아니라 가정과 학교에서도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한다고 밝힌다.

◆ 대학부 - 토요집회

토요일 오후 5시. 4층 집회실에 찬양이 퍼진다.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할 테지만 대학생들이 토요일의 황금같은 시간을 떼어 찬양과 기도와 말씀공부로 진행되는 집회로 모인다. 시간과 공간이 한정된 주일 집회에서는 미처 하지 못하던 충분한 교제도 나누며 집회실이 차고 넘치는 대학부의 미래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3주째 모이면서의 변화에 대해 한 회원은 "혼

자서 기도할 때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힘이 뒷받침되는 것을 느낍니다. 대학부를 사랑하는 마음도 더 커졌어요" 라고 말했다.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대학부 회원들은 "청년의 때 끈 끈고한 날이 이르기 전,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다.

◆ 청년부 - 기도회와 「100청년운동」

수요 II부 예배를 마친 후 기도회로 모이면서 청년들은 얼마나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공유하는 일을 사모했던가를 서로에게서 발견하며 놀라고 있다. 지속적인 기도가 힘들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던 터에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기도의 장을 마련해 놓으니 서로를 격려하는 가운데 모임의 열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과감히 공개하며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교회의 장래와 청년부의 비전을 놓고 기도한다. 교회 안에 있지만 흔들리고 있거나 소외된 청년들,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을 찾아 「100청년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스데반회

1박 2일간의 수련회 갖기로

안수집사들의 모임인 스데반회에서는 10월 2일(월) - 3일(화), 1박 2일간 이종운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제주도에서 수련회를 갖는다.

제 8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 ① 10월 2일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이종운 목사)
제 2교시 / 신앙과 인성회복 (안병욱 교수)
- ② 10월 9일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이종운 목사)
제 2교시 / 상담을 통한 인성회복 (심상권 박사)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X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대전 기독교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 5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매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부흥하는 교회에는 반드시 식당이 있다는데... 현재 주일마다 부서별로 식사를 준비해오다 보니 몇몇 분들에게는 다소 부담이 되는 경향이 있고, 교회당 건물에서 음식냄새가 나는 것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크고 깨끗한 식당이 마련되어 교회 부흥에 한 몫을 담당했으면 합니다. 김치세미나, 목회자 신학세미나와 같이 큰 행사를 치를 때마다 식사를 위해 봉사하시는 권사님들의 수고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요." (이영주 집사)

● "일주일만에 만나는 성도들과 충분한 대화와 교제를 나누며 자유롭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멀리서 오는 성도들이 저녁예배까지 기다리는 동안 피로하지 않고 귀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춘홍 집사)

● "차량관리위원들의 수고가 감해지길 기대해 봅니다. 다행히 버스 정류소가 바로 앞에 있고 지하철역이 가깝기 때문에 주일에는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편을 이용하는 일이 권장되어야 하겠지만 점차 늘어나는 자가용 수에 대한 장기적인 주차 대책이 마련되어 주차로 인해 예배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넉넉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조정식 집사)

목회자 동정

* 이종운 목사는 10월 9일에 연세 신학 80주년 기념강좌에서 강연을 한다. 당일 오후에는 연세 신학선교센터 추진위원장의 자격으로 기공식을 갖고 연세신학 목회분야 공로패를 받는다.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비전 2000운동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2. 제 8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가 은혜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4. 고3학생들을 위하여
5.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 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위치

